

## 부문별 주요동향 (6.25~7.24)

1. 대내경제 .....	52
국제전화 대부분 폐쇄 .....	52
나진·선봉 호텔영업 재개 .....	52
대안유리공장 85% 건설 .....	52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공동구호 발표 .....	53
김책 공대, 전자도서관 건설 마감단계 .....	53
구성담고장 자동화 .....	53
『경제연구』, “물질적 자극 적절히 배합해야” .....	54
교육시설 현대화 작업 .....	54
내각 확대회의 개최 .....	55
교육후원기금, 자연환경보호기금 설립 .....	55
경제분야 제품의 질 향상 독려 .....	56
평양에 유럽스타일 카페 문열어 .....	56
백마-철산 수로공사 완공단계 .....	57
황남 강령지역 송전시설 현대화 .....	57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및 주택건설 박차 .....	57
동평양화전 터빈 보일러 보수공사 .....	58
경공업 과학분원 연구활동 성과 .....	58
평안남도 온천청년제염소 준공 .....	59
평스제약, 진통제 및 항생제 생산 .....	59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원도 원산만제염소 시찰 .....	59
2. 농업 및 식량 .....	60
WFP, 북한 하루 곡물량 200g으로 다시 축소될 듯 .....	60
통일부, 비료 15만t 추가지원 결정 .....	60
각지 협동농장, 병충해 피해 대책 수립 .....	61
대북 추가 비료수송에 북한 선박 투입 .....	61
개성시, 농경지 큰물 피해방지 대책 전개 .....	62
농촌 김매기 실적과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 독려 .....	62
정부, 북한이 요청한 쌀 50만t 모두 지원 결정 .....	62
쌀값 10개월새 2배 치솟아 .....	62
농촌 풀베기 전투 돌입 .....	63
울산항, 대북지원 비료 2차 수송 완료 .....	64
3. 대외경제 .....	64
국제 은행시스템 연구 희망 .....	64

예멘과 무역·투자협정 체결 .....	64
EU 집행위, 북한 보건분야에 132억원 지원 .....	65
북한의 대외무역비중 한국·중국 60% 차지 .....	65
케냐, 우간다와 경제기술협조 양해각서 체결 .....	66
북한·이란·시리아 회사 미국내 자산 동결 .....	66
WHO 북한대표부 아이길 소렌슨 대표, 북한 보건의료 중장기적 지원 필요 .....	66
북한 수출품 태국시장에서 호평 .....	67
북-일 교역 감소세 지속 .....	68
WHO, 산모·영아 보건사업 지원 계획 .....	68
EU의원단, “북한, WTO 가입 희망” .....	68
북중접경무역 활발, 중국산 가전제품 인기 .....	69
미국, 북한 주민 직접지원 .....	69
북한 관리 9월 스위스서 시장경제 연수 예정 .....	70
북한, 단둥서 철강과 전자재 다량 구입 .....	70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71
방북자(금강산 방문객 제외) 10만명 넘어 .....	71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영업실적 꾸준히 증가세 .....	71
개성공단에 남북신발연구소 건설 계획 .....	72
대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 추진 .....	72
남북공동영농단지, 경협사무소 개설 추진 .....	73
평양·개성 골프관광 합의서 체결 .....	73
화상상봉, 남북 첫 접촉 .....	74
파주·연천에 남북경협단지 조성 검토 .....	74
통일부, 6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75
정부, 북한의 영유아 지원예산 300억 .....	75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 .....	7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상호보완적' 경협 합의 .....	76
대북 중대제안 핵심내용 .....	77
'왕후심청' 애니메이션 남북 동시 개봉 .....	77
과기부,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 .....	78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첫 남북공동조사 .....	78
금강산 해수욕장 첫 야영객 받아 .....	79
백두산·개성 다음 달 시범관광, 서울~삼지연공항 직항로 개설 추진 .....	79
파주서 광케이블 연결식 .....	79
에스제이-지에스, 중국과 1천만달러 공급협약 조인 .....	80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 110% 증가 .....	80
핵의학 분야 남북 협력 .....	81
개성공단 진출 남한기업, 근로자 25명 해고 .....	81
서해 충돌방지 통신연락소 다음 달 13일부터 운용 .....	82
개성공단 다음 달1일부터 분양 .....	82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83
홍석현-박길연 뉴욕서 6자회담 재개 논의 .....	83
G8, 북한 6자회담 복귀 촉구 .....	83
힐-김계관 북경 극비접촉, 6자회담 재개 전격합의 .....	83
6자회담 26일부터 베이징 개최, 폐회날짜는 안 정해 .....	84
중·러 안보협력 높이 평가 .....	84
KEDO, 경수로사업 무관 계속 존치 .....	85
북·중 상호원조조약 체결 맞아 친선 강조 .....	85
WFP, 북한 호우피해지역 조사단 파견 .....	86

## 1. 대내경제

---

### 국제전화 대부분 폐쇄

---

6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지난 3월말부터 조류독감 발생 등 내부 정보의 대외유출과 관련해 국제전화 사용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고 보도.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상사의 국제전화는 대부분 폐쇄하고 정부기관도 대외 업무를 위해 국제전화가 필수적인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했다”면서 “지난 4월 중순부터는 ‘국제전화 이용자 증명서’ 소지자만이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통화도 보안요원 입회하에 하도록 했다”고 보고. 국정원은 “북한의 이런 동향은 광복 및 당 창건 60주년 준비와 관련한 대내외불안 요소를 사전 제거해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6. 28).

---

### 나진·선봉 호텔영업 재개

---

6월 28일 『서울신문』은 북한 나진·선봉지구의 엠페리(英皇)호텔이 카지노 시설을 철거하고 5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고 27일자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해 보도. 최근 현지를 다녀온 중국인 관광객에 따르면 중국 당국도 5월 중순부터 중국인의 나진·선봉관광 재개를 허용했으나 이용객이 적어 호텔은 한산한 상태라고 신문은 보도(『서울신문』, 6. 28).

---

### 대안유리공장 85% 건설

---

6월 30일 『국민일보』는 착공 1년을 맞는 북한의 대안친선유리공장(평북 대안군)의 건설공정이 전체의 85%정도 진척됐다고 『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있는 이 공장은 지난 해 7월 1일 착공했으며 북한 노동당 창당 60주년(10.10)에 맞춰 완공될 예정. 공장이 완공되면 하루 최고 300t의 원료를 처리하고 약 200t의 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 『중앙통신』은 “전반적 공장 건설은 85% 계선을 돌파했다”면서 “일부 대상에서는 부분별 시운전과 함께 지대 정리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고 전함. 또 “유리공장의 원료 보장을 담당할 단위의 개건 확장공사가 끝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힘. 통신은 “조·중 두 나라 건설자들의 협조와 노력 투쟁에 의해 수십여 개의 대상건물 건축공사가 기본적으로 완공돼 현재 공장건축공사는 90% 계선을 넘어섰으며 지금은

설비조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함. 『중앙통신』은 “폐열 보일러(폐열을 활용한 보일러) 굴뚝 골조공사 기일도 예정보다 앞당겨 끝내고 대동강 기슭에 모래 하선부두를 건설했으며 철길 인입선 노반공사를 2개월만에 끝냈다”고 덧붙임(『국민일보』, 6. 30).

---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기념 공동구호 발표

---

7월 2일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했다고 보도. 공동구호는 “위대한 선군정치 아래 억세게 다진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자”, “과학을 중시하고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등 경제 관련 구호 뿐만 아니라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등과 관련된 구호를 발표(『로동신문』, 7. 2).

---

### 김책 공대, 전자도서관 건설 마감단계

---

7월 6일 『조선신보』는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 건설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소개. 연건평 1만4천150㎡(건평 3,074)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설되는 도서관은 전자열람실을 비롯하여 각종 열람실 30여개, 부문별 강의실과 종합강의실 총 12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선신보』는 설명. 도서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통보사업을 진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과학기술보급센터로서 대학 두뇌진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조선신보』는 설명. 이 도서관은 지금 마감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 10일 개관할 것이라고 『조선신보』는 덧붙임(『조선신보』, 7. 6).

---

### 구성닭고장 자동화

---

7월 9일 『조선신보』는 평안북도 구성시의 구성닭공장이 첨단 자동설비를 갖춘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구성닭공장이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 사료배급, 환기, 온도 및 빛 조절 등 모든 양계 과정을 컴퓨터로 자동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육류 1천t, 계란 1천만개에 달한다고 설명. 구성닭공장은 1967년 건립된 이후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약 10년 동안 정상화되지 못하다 2001년부터 2차례에 걸친 현대화 공사에 착수. 공장에는 6개의 ‘현대화된 평사식 살찌우기 호동’이 새로 건설됐으며 기존의 고기가공, 사료가공, 알깨우기 등의 시설이 현대적으로 개축되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조선신보』, 7. 9).

---

### 『경제연구』, “물질적 자극 적절히 배합해야”

---

7월 6일 『연합뉴스』는 『경제연구』 2005년 2호에서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그 ‘적용 원칙’을 소개했다고 보도. 『경제연구』는 먼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되며 자신의 물질문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 이어 생산량 증가, 기업관리 개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개인 이기주의 극복 등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꼽은 뒤 “물질적 자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경제적 수단”이라고 강조. 잡지는 그러나 “물질적 자극을 아무렇게나 망탕(마구)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물질적 자극에만 치우쳐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면 근로자들이 돈과 물건만을 알게 되는 저속한 존재가 되고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잡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계. 이 경우 인센티브 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위협에 빠뜨리고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고 잡지는 주장. 그렇다고 물질적 자극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로자의 생산 열의와 창의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건달꾼”이 생겨나 경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함. 잡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도덕적 자극’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지적. 잡지는 또 “정치·도덕적 자극을 확고히 앞세우고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옹계 적용해야만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7. 6).

---

### 교육시설 현대화 작업

---

7월 1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6월 30일자 북한 『교육신문』은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시설 현대화 작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교육신문』에 따르면 희천체신대학은 최근 정보봉사실, 정보통신실험실, 컴퓨터운영실을 개선하고 4개의 텔레비전 방송실습실을 새로 마련. 또 평양시 상원군 상원제1중학교와 평양 선교제1중학교에서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새로 설치해 학생 교육에 활용. 황해북도 평산군 남천제1중학교에서는 각종 멀티미디어 교재를 갖춘 전자도서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제4소학교와 평안남도 천리마군의 포구소학교 등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 이처럼 각급 학교들이 현대적

교육설비를 갖추게 된 데는 북한의 성·중앙기관 및 학교 후원단체들의 적극적 후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신문은 전함. 북한은 교육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조선교육후원기금을 설립하고 정견과 신앙, 인종과 국적, 성별의 차이를 초월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7. 15).

---

### 내각 확대회의 개최

---

7월 15일 『연합뉴스』는 내각이 최근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계획 집행, 분야별 집행계획 등 경제 전반을 논의했다고 보도. 15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내각 확대회의에는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 위원회 관계자, 내각 직속 기관 책임자, 도·시·군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주요 공장 기업소 지배인 등이 참석.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집행정형(집행상황)과 상반기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총화(결산)하고 노동당 60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함. 회의에는 올해 알곡생산목표 달성 문제를 비롯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경제 각 분야별 발전 과제도 상정. 특히 생산규모가 큰 자전거조립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의 기술 개선, 비단 등 생활필수품 생산 증대, 노동당 창당 60주년 이전 수만 가구 주택 완공, 주민에 대한 샘플(식수) 공급 정상화 등을 집중 논의. 보고를 한 박 총리와 토론에 나온 리경식 농업상, 주동일 전기 석탄공업상, 김용삼 철도상 등은 농촌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많은 공장과 기업이 상반기 계획집행에 적극 나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연합뉴스』, 7. 15).

---

### 교육후원기금, 자연환경보호기금 설립

---

7월 1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교육후원기금과 자연환경보호기금 등 기금을 잇달아 설립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보도. 기금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부족한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사업이라고 『연합뉴스』는 파악. 리영 교육기금 서기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지만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물질적, 재정적 후원사업을 강화해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교육사업을 균등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과서 발행 사업을 강조.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환경기금도 교육기금과 마찬가지로 북한내 식수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분석.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기금은 공익성을

가진 분야에서 외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형태의 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특히 북한이 잇달아 기금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대북지원 피로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연합뉴스』, 7. 15).

---

### 경제분야 제품의 질 향상 독려

---

7월 1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7월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을 맞아 각 경제 부문에서 품질 향상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 국가품질감독국 손병학 부국장은 14일 『중앙TV』와 인터뷰에서 “7월 제품 질 제고 대책 월간에 무엇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적인 품질관리 질서를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 모든 성, 중앙기관들은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월간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제품의 질을 높여야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 수 있다“며 “21세기 경제, 과학기술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계량계측수단을 보충 완비하고 검사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연합뉴스』, 7. 15).

---

### 평양에 유럽스타일 카페 문열어

---

7월 16일 『국민일보』는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ADRA)가 지난달 21일 북한의 평양 중심부에 유럽스타일의 카페 ‘별무리(Pyomuri)’가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스위스 스타일의 빵 22가지와 35가지 서양식 식사를 제공하는 베이커리와 레스토랑의 혼합형태로, 한번에 최대 30명이 이용할 수 있고, 2개의 방도 있음. ADRA는 이 카페의 수익금으로 북한의 2개 학교에 매일 5t의 빵과 과자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평양에 이같은 카페를 만드는데 든 비용은 8,000만원. 스위스의 대형할인점인 미그로스(MIGROS)와 ADRA 스위스 본부가 비용을 지원했고 북한 정부도 도움을 주었다고 이 신문은 설명. 카페가 처음 문을 연 날에는 8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북한 정부 인사와 평양의 외교사절,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호단체 관계자들이었음. ADRA는 안식일교 계열의 국제구호단체로, 1999년부터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북한내 5개 지역에서 식량공급과 경제개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소개(『국민일보』, 7. 16).

---

### 백마-철산 수로공사 완공단계

---

7월 16일 『연합뉴스』는 평안북도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백마-철산 물길 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16일 “평안북도 일대의 논벌을 적시는 백마-철산 물길공사가 온 나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조선신보』는 “이미 수십 개의 물길굴(도수터널)과 약 1천개 대상의 각종 구조물건설이 끝났으며 백마저수지 기본 언제(담)와 보조 언제, 취수 구조물과 흙 물길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밝힘. 신문은 또 “물길 건설에서 중요 대상인 백마저수지 기본 언제 공사를 담당한 황해관개건설여단과 농업성 물길건설 기계화사업소대대 일꾼들은 굴착기, 대형 화물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날마다 1만여㎡의 혼석을 운반하고 있으며 언제 경사면 돌입하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연합뉴스』, 7. 16).

---

### 황남 강령지역 송전시설 현대화

---

7월 17일 『연합뉴스』는 황해남도 강령지역에서 송전시설 현대화공사를 완료, 농업용 양수시설을 가동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중앙TV』를 인용해 보도. 『중앙TV』는 “황해남도 송배전부 기술자들이 강령지구의 송전계통 개건(개선)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4개 군의 1만 수천 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대주기 위한 양수동력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7).

---

###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및 주택건설 박차

---

7월 18일 『연합뉴스』는 자강도에서 전력자급을 위한 중소형발전소와 주택 건설 등 도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중앙방송』은 이날 “도 당위원회의 작전 밑에 이미 도에 건설된 230여개 중소형 발전소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투쟁과 함께 홍주 청년2호 발전소를 비롯해 도에 14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우기(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기세차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방송은 또 자강도는 올해 4천 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도내 곳곳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나아가 홍주오리공장 확장공사, 강계경기장과 도 예술극장 개건 현대화공사, 도내 시·군의 종이공장을 비롯한 2~3개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개축하기 위한 공사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 이와 함께 각 시·군에서 수질이 좋은 샘물을 발굴, 주민 식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과 도로관리 및 산림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연합뉴스』, 7. 18).

---

### 동평양화전 터빈 보일러 보수공사

---

7월 19일 『연합뉴스』는 평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가 1, 2호 터빈과 보일러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중앙방송』은 이날 박윤길 생산부 기사장의 말을 인용,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전력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전선으로 내세운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면서 1, 2호 터빈에 대한 설비 보수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또 종전에 오래 걸리던 보일러 대보수를 한 달 동안에 끝낸다는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중앙방송』은 이같은 설비 보수를 한 달 동안에 끝낸다는 것은 동평양화력발전소 능력으로 볼 때 3배에 달하는 작업량이라면서 이에 따라 참모회의를 개최, 보일러 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정확히 분배하고 부족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함. 동평양화력발전소는 설비 보수공사에 발맞춰 터빈과 보일러 설비의 운전조작을 기술규정대로 진행,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연합뉴스』, 7. 19).

---

### 경공업 과학분원 연구활동 성과

---

7월 20일 『연합뉴스』는 과학원 경공업 과학분원 소속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연구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중앙방송』에 따르면 경공업 과학분원 식료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고체 배양에 의한 효소제 생산 방법을 개발해 원료 소비를 대폭 줄이면서 어린이 식료 가공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곡물가공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구마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들의 합리적인 배합 비율을 새로 밝혀내고 설비 제작과 조립, 시험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 또한 선별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콩가공품 생산공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완성한 식료기계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각지 식료공장들에 생산성이 높은 가공 설비들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 이 밖에 방직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영변견직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합심해 기술 개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과학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질 좋은 견직물 생산을 선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는 덧붙임(『연합뉴스』, 7. 20).

---

### 평안남도 온천청년제염소 준공

---

7월 20일 『연합뉴스』는 평안남도 온천군에 온천청년제염소가 19일 준공됐다고 보도. 20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광량만지구에 새로운 염전을 건설하기 위한 당의 과업을 받들고 펼쳐나선 건설자와 지원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헌신적 투쟁을 벌여 소금생산기지 건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 통신은 “제염소를 선군시대를 빛내는 창조물로 일떠세움으로써 도 안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평안남도당위원회 리태남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꾼, 도안의 청년돌격대원과 온천군 안의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연합뉴스』, 7. 20).

---

### 평스제약, 진통제 및 항생제 생산

---

7월 22일 『중앙일보』는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가 우수한 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맞는 진통제와 항생제를 본격 생산할 준비를 갖췄다고 보도. 평스제약합영회사는 북한 보건성 산하 평양제약공장과 스위스 인터패시픽홀딩그룹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제약회사로, 지난해 6월 조업에 들어갔다고 『중앙일보』는 보도.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아스피린 성분의 평스스피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평스세타몰(파라세타몰), 평스프로펜(이브프로펜), 평스미줄(메타미줄) 등 진통제와 독시사이클린, 노르플록사신 등 항생제 생산도 시작하게 된다고 『중앙일보』는 소개. 오송근 부사장은 “평스제약합영회사는 건설, 위생, 검사 등 모든 부분이 세계적인 GMP에 부합되는 하나의 완성된 생산공정으로 꾸려져 있다”고 말함. 『중앙통신』은 “의약품을 다루는 생산현장에는 특수한 여과장치가 달린 공기조화기들이 있어 언제나 먼지가 없는 환경 보장과 온도, 습도, 압력을 조정한다”고 전함. 또 “회사에는 의약분야 전문가, GMP의 강습을 받은 (구)성원들을 포함해 고급기능공 10여 명이 있다”고 덧붙임(『중앙일보』, 7. 22).

---

###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원도 원산만제염소 시찰

---

7월 23일 『연합뉴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강원도 천내지구의 원산만제염소를 시찰했다고 『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 원산만제염소는 김일성 주석이 동해안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할 것을 지시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3단계 공사를 거쳐

550정보 규모로 조성.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망대에 올라 염전과 소금 정제직장, 산기슭에 마련된 살림집 등 제염소 전경을 돌아본 후 “도 자체의 힘으로 이처럼 큰 공사를 해제긴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또 강원도의 제염소 건설 경험은 “신념과 투지를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원만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모든 부문, 단위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원산만제염소 종사자들이 소금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한 후 “소금밭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현지에서 강원도 인민위원회 고종덕 위원장,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박정남 비서를 비롯한 도와 제염소 관계자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으며 리재일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7. 23).

## 2. 농업 및 식량

---

### WFP, 북한 하루 곡물량 200g으로 다시 축소될 듯

---

6월 2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공공배급망에 의해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하루 곡물량이 또다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24일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최신 주간 구호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곡물량은 250g이지만 상당수 군 관계자들은 7월부터 200g으로 축소될 계획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힘. WFP는 하루 곡물량이 250g으로 늘어날지 여부는 밀과 보리의 조기 수확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음. WFP는 올 하반기에 대비한 외부의 식량지원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어 추수를 앞둔 앞으로 4~5개월동안 360만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WFP는 노인, 취로사업 참가자, 초등생, 임산부 등 360만명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WFP가 3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곡물과 채소가 3대 7의 비율로 섞인 죽을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6. 25).

---

### 통일부, 비료 15만t 추가지원 결정

---

6월 26일 『연합뉴스』는 정부는 북한의 비료 15만t 추가지원 요청과 관련, 내부 협

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고 보도. 추가로 지원되는 비료 수송작업은 27일 오후 여수항에서 씨매스터호가 첫 출항분 5천t을 싣고 남포항으로 출발함으로써 개시될 예정. 이 당국자는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8일 한적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비료 추가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한완상 한적총재 방북(6.21~24) 및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거듭 지원을 요청을 해온 점과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완화시킨다는 인도적, 동포애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했다”며 추가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 정부는 북측이 지난 1월 적십자 라인을 통해 50만t의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지원을 미뤄오던 중 지난 5월 16~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봄철 비료로 20만t을 지원키로 합의하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설명. 정부는 차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5월 22일부터 수송에 들어가 지난 19일 마지막 물량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면서 육·해로를 통해 20만t의 비료 수송을 끝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6. 26).

---

### 각지 협동농장, 병충해 피해 대책 수립

---

6월 27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24일 『중앙방송』을 인용해 “전국 각지 협동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밭 가꾸기와 함께 병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보도 “황해남도 협동농장들에서는 병 해충 피해 막이 사업과 함께 논 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평안남도 협동농장들에서도 잠복소를 세워놓고 며칠에 한번씩 그것을 불태워 벌레들을 없애고 있다”고 전함(『국가정보원』, 6. 27).

---

### 대북 추가 비료수송에 북한 선박 투입

---

6월 29일 『연합뉴스』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추가로 지원키로 한 비료 15만t 수송에 북측 선박 4척이 다시 투입된다고 보도. 정부는 또 약 600억원 상당의 이번 추가 지원분 비료를 해로 13만t, 육로 2만t으로 나눠 수송할 방침.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 교류국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해로를 통해 남측 선박 11척과 북측 선박 4척이 투입된다”면서 “북측 첫 배인 룡강2호가 다음 달 1일 울산항에 도착해 1만2천t의 비료를 싣고 북한 남포항을 향할 예정”이라고 말함. 육로 수송은 울들어 1차 지원이 이뤄진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도로를 통해 개성 봉동역으로 전달되며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달 9일부터 매일 2천t씩 수송. 당초 지난 27일 5천t의 비료를 싣고 여수에서 남포로 출항할 예정이던 우리측 지원선박 첫 항차인 씨매스터호는 비료 인

한 선적 지연으로 이날 오후 출항. 우리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북측에 비료를 지원하기 시작, 이번 추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190만t의 비료를 전달하게 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6. 29).

---

### 개성시, 농경지 큰물 피해방지 대책 전개

---

6월 29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28일 『중앙방송』이 “개성시에서 논밭들의 큰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 “저수지·배수문 공사·하천정리·물길공사 등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이번 작전은 138개 대상의 토량처리·돌입하기 등 많은 양의 구조물 공사를 해제껴야 한다”면서 “공사를 맡은 토지 및 하천건설사업소 노동계급은 힘든 공사이지만 부족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여 방수로 공사·발파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공사를 마감단계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국가정보원』, 6. 29).

---

### 농촌 김매기 실적과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 독려

---

6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29일 『중앙TV』를 인용해 농업성 부국장 최현수가 전국 농촌의 논밭 김매기 실적 및 장마철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등을 소개했다고 보도. 최현수 부국장은 “장마철에 한포기의 농작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큰 품을 들여 마련한 지금의 농사작황이 풍요한 가을로 이어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농촌들은 고인물 빼기, 저수지·강하천 제방 보강, 바람 피해 방지와 병해충 구제 사업 등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정보원』, 6. 30).

---

### 정부, 북한이 요청한 쌀 50만t 모두 지원 결정

---

7월 9일 『조선일보』는 정부가 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장관급회담 때 지원을 요청했던 쌀 50만t을 차관형식으로 모두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조선일보』, 7. 9).

---

### 쌀값 10개월새 2배 치솟아

---

7월 15일 『문화일보』는 9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럽의회 대표

단이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방문에서 얻은 인상을 소개했다고 보도.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 '북한통'으로 꼽히는 영국 출신의 글린 포드 의원은 "아직도 북한의 산업 부문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고 눈에 띄만한 경제 발전상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도 "임금과 상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한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고 말함. 포드 의원은 그러나 "지난 2004년 9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쌀 가격이 kg당 420원에서 780~880원으로 100% 올랐고 1유로당 환율도 1450원에서 3050원까지 크게 치솟았으며 식량 배급량도 1인당 250g에서 200g으로 줄어 부양가족이 있는 임금 근로자 가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난 2002년 7·1 경제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벨기에 출신의 헬머 로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여기저기에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는 모습이 보였고 심지어는 병원 부지에까지 텃밭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역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과연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밝힘. 로저 의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북한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유지하겠다는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들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는 역설이었다"고 말함. 로저 의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체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한이 외부로부터 막대한 식량 원조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상관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이번 대표단의 단장으로서 북한을 처음 방문했다는 우르술라 스텐젤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 관계자들은 우리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함흥시를 방문했을 때 귀빈관에 묵었는데 흐르는 수도물이 없어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씻어야 했다"고 북한 사정을 설명(『문화일보』, 7. 15).

---

### 농촌 풀베기 전투 돌입

---

7월 17일 『연합뉴스』는 『중앙TV』를 인용해 16일 "당창건 60돌(10.10)에 즈음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어 각지 농촌에서는 당면한 농작물 비배(재배) 관리에 힘을 쏟으면서 풀거름을 비롯한 유기질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풀베기 전투에 들어섰다"고 보도. 특히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 근로자들은 전국의 농업 근로자들에게 풀베기를 호소하는 모임을 갖고 "풀베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방송은 전함. 방송은 "모임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대지를 기름지게 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더 많은 풀거름

더미를 쌓아 알곡 생산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7. 17).

---

### 울산항, 대북지원 비료 2차 수송 완료

---

7월 19일 『연합뉴스』는 지난 1일부터 울산항에서 시작한 2차 대북 지원비료 6만2천200t의 수송이 19일 우리나라 선박 목친호의 출항으로 모두 끝났다고 보도. 울산항을 통한 대북 지원비료 수송은 그 동안 남측과 북측의 선박 8척이 6만2천200t을 북측의 흥남항과 원산항, 해주항, 남포항으로 수송했으며, 북측 선박 3척이 2만7천200t을, 우리나라 선박 5척이 3만5천t을 각각 수송. 이는 전체 2차 대북지원 15만t(육상수송 2만t, 해상 13만t)의 41.5%, 해상 수송량의 47.8%를 차지. 또 울산항을 통해 1차(육상 1만t, 해상 19만t)와 2차를 합쳐 총 15만7천800t을 수송, 전체의 45.1%, 해송량의 49.3%를 담당. 울산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대북 지원비료는 삼성정밀화학(주), 동부한농화학(주), 조비(주), KG케미칼(주), 비엔시(주), 한국카프락탐(주) 등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7. 19).

## 3. 대외경제

---

### 국제 은행시스템 연구 희망

---

『연합뉴스』는 6월 25일 북한이 국제 은행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고 있다고 조선중앙은행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제75차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조선중앙은행 간부 김명수씨는 이날 2002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 상황과 국제결제은행(BIS) 총회 참가 목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BIS의 구조에 대해 알기를 원하며 국제 은행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연합뉴스』, 6. 25).

---

### 예멘과 무역·투자협정 체결

---

6월 26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예멘이 ‘무역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과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고 『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 『중앙통신』에 따르면 립경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 경제대표단이 아프리카 순방 후 예멘

을 방문해 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6. 26).

---

### EU 집행위, 북한 보건분야에 132억원 지원

---

6월 28일 「경향신문」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북한 보건분야 지원을 위해 1천72만유로(약 1백32억원) 규모의 대북지원 계획을 채택했다고 27일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 EU 인도지원사무국(ECHO)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금은 의료 장비와약품 구입, 보건센터 및 병원 재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 또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벌이고 있는 유아 23만5천명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이 자금을 지원. EU의 이번 자금 지원으로 함경남도과 평안남·북도, 자강도, 개성 등 주민 8백만명 이상이 의료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임(「경향신문」, 6. 28).

---

### 북한의 대외무역비중 한국·중국 60% 차지

---

6월 28일 「세계일보」는 북한이 7·1조치 이후 중국·한국과 경제 관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상이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부문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한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 2004년 북중 교역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3억8,500만달러로 북한 총교역액 32억9,500만달러의 42%를 차지. 중국은 또 북한이 지난해 유지한 외자 5,900만달러의 85%에 달하는 5,000만여달러를 투자. 올해는 양국 교역이 더 늘어 1분기 3억1,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1% 늘었고, 이에 따라 북한 내 중국 공산품의 시장점유율도 70%를 웃돌고 있음. 남북 교역은 지난해 6억9,000만달러로, 2003년의 7억2,000만달러보다는 줄었지만 북한 대외무역의 19.6%를 차지. 한국은 특히 북한이 외부에서 받은 지원액의 61%에 달하는 2억5,620만달러를 지원.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7,591만달러가 북한에 투자됐고, 그 결과 2,3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57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근무. 북한이 이처럼 한·중과의 경제교류를 증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온 역할을 시장에 넘기면서 생기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일보」는 분석. 정부 당국자는 27일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의 기능 강화를 축으로 하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 부족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한·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부분적으로 공급 부족을 메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임(「세계일보」, 6. 28).

---

### 케냐, 우간다와 경제기술협조 양해각서 체결

---

6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케냐, 우간다와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최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는 립경만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대표단이, 케냐측에서는 피토 안양 리옹고 계획 및 국가 발전장관 등이 참석. 우간다에서는 립 무역상과 다우디 미게르코 관광·무역 및 공업장관이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6. 28).

---

### 북한·이란·시리아 회사 미국내 자산 동결

---

6월 30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29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련있다고 판단된 북한 회사 3개사가 현재 미국 내에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령을 내렸다고 보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등의 WMD 확산에 직접 관여했거나 연루된 이들 나라 회사들의 현재와 미래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힘.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북한 기업은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등 3개사임.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최우선 정보관심 대상 국가나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조정하고 정보전략을 개발토록 '특명관(missionmanager)'을 국가정보국장 산하에 설치토록 함. 정보관심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이 포함된다고 미 언론은 보도. 부시 대통령의 이날 조치는 지난해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WMD 확산방지 대책과 최근 미 WMD정보역량평가위원회의 정보력 강화 건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설명(『연합뉴스』, 6. 30).

---

### WHO 북한대표부 아이길 소렌슨 대표, 북한 보건의료 중장기적 지원 필요

---

7월 1일 『경향신문』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의 단기적 지원보다는 보건, 의료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최근 방한한 아이길 소렌슨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대표부 대표가 말했다고 보도. 30일 WHO 등의 활동으로 북한의 보건, 의료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 2001년부터 평양시에 거주하며 WHO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소렌슨 대표는 “지난 10년에 걸쳐 북한 내에서 영양실조가 크게 줄어들고, 말라리아와 결핵 예방접종 등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내에

는 수혈센터가 전국에 2곳밖에 되지 않는 등 중환자 치료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함. 그는 또 "북한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어 공공보건이나 의료기술 분야가 크게 낙후돼 있다"며 "의료기기나 장비 제공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시스템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임. 소렌슨 대표는 한국 정부의 북한 의료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한국 정부와 북한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를 위해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게 돼 기뻐다"고 말함. 그는 "지금 북한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생선도 필요하지만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식량, 의약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보건 인력을 교육시키는 등 북한내 병원 현대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경향신문』, 7. 1).

---

### 북한 수출품 태국시장에서 호평

---

7월 1일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는 상품 및 원료가 태국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 1일 KOTRA가 태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북 교역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정제유 및 곡물의 수출감소로 대북 수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태국 기업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4% 증가한 3천65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 KOTRA는 이와 관련, "화학제품, 비료, 기계 및 고철 등 10대 수입 품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형 가전제품은 200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12배가 증가한 1천4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힘. 특히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태국 업체 10곳 중 7곳이 북한산 제품의 높은 경쟁력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도 수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북한으로부터 수입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에서 타이어용 몰드(금형)를 수입하고 있는 맥시스인터내셔널 (Maxis International)사는 "태국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중 공장을 확장하고 월 1~2회에 그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북한에서 암모늄 황산염을 들여오고 있는 '내셔널 퍼틸라이저 퍼블릭(National Fertilizer Public)사'도 태국내 소비증가에 따라 수입 물량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KOTRA는 밝힘. 북한산 섬유제품도 태국 시장에서 품질과 디자인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북한의 유망 수출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에서 섬유 직물을 수입하고 있는 '와-타이 인더스트리얼(Wa-Thai Industrial)사'는 "섬유 직물 수입이 섬유 제품 수출과 연관돼있기는 하지만 북한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감안할 때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알루미늄 참치 포장재를 수입하고 있는 한 태국 업체

는 “태국산을 포기하고 대신 품질이 뛰어난 북한산을 수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입액이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

---

### 북-일 교역 감소세 지속

---

7월 1일 『연합뉴스』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북-일 무역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30일 KOTRA에 따르면 일본 세관이 발표한 올 4월까지의 북한의 대일 수출액은 46억1천만엔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8% 감소. 또한 북한의 대일 수입액도 23억5천2백만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13.6%가 감소. 북한과 일본의 무역규모는 양국 관계 악화로 2002년, 2003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전년대비 4.8% 감소해 다소 진정세를 보임. KOTRA 관계자는 “올들어 북한산 조개의 원산지 표기문제가 불거진 데다 보험미가입 선박의 일본입항 불허 조치로 인해 양국 교역의 감소폭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

---

### WHO, 산모·영아 보건사업 지원 계획

---

7월 14일 『연합뉴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부터 북한의 산모와 영아의 보건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보도. 아이길 소렌슨 WHO 평양사무소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의 목적은 북한 보건 체계의 취약성, 특히 소규모 병원의 보건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지방 병원의 능력을 강화해 분만 시 안전,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소렌슨 대표는 “이번 사업은 의료장비나 약품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북한 의료진에 대한 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 보건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후된 의료관행”이라고 지적. 그는 이어 “북한에서 의사는 많지만 간호사는 너무 적다”며 “간호사를 직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7. 14).

---

### EU의원단, “북한, WTO 가입 희망”

---

7월 15일 『문화일보』는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희망하고 WTO 사무국과 구체적인 접촉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북

한을 방문하고 연이어 한국을 방문한 유럽의회 한반도 의원외교협의회의단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현재 WTO 참관국(옵서버) 자격을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WTO 사무국과 접촉 중”이라면서 “이같은 사실을 김광린 북한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힘. WTO 옵서버 자격은 WTO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가입이 되기 전에 얻는 자격으로, 북한이 WTO 가입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옵서버 자격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WTO 가입을 위해서는 WTO가 원하는 각종 국제 규범 실천과 투명성 확보, 국제 법체계의 전환 등 북한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WTO 가입 의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 이번 방북 대표단 단장인 우르술라 스텐젤 의원은 “북한은 현재 WTO 사무국과 접촉중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하며 “이라크도 옵서버 자격을 얻어냈던 만큼 북한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문화일보』, 7. 15).

---

### 북중접경무역 활발, 중국산 가전제품 인기

---

7월 15일 『연합뉴스』는 북중 접경무역의 길목인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시의 올해 대북 무역액이 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 15일 『홍콩강신문』은 “화룡시의 대조선(對北) 변경무역은 올해 전례없는 호황을 맞아 수출입 총액이 4억위안(약 5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1~5월 무역액이 1억1천49만위안(약 213억)에 달했다고 밝힘. 신문에 따르면 이 기간 대북 수출액 7천357만위안 가운데 가정용 전기제품(2천989만위안)과 기계, 금속제품(2천373만위안)이 각각 40%와 32%를 차지해 높은 신장세를 보임. 두 항목이 곡물, 식품, 석유 등 예년의 주요 수출품목을 대체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 또 같은 기간 북한으로부터 수입액은 9천691만위안으로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석, 목재, 지방 특산물 등임(『연합뉴스』, 7. 15).

---

### 미국, 북한 주민 직접지원

---

7월 16일 『세계일보』는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 도시빈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직접 벌인다고 보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북한 담당자들은 15일 비정부기구단체 연합회인 ‘인터액션’ 산하 북한구호활동 관련 단체 모임인 북한 워킹그룹 월례간담회에 참석, 200만달러 범위 내에서 미 정부가 북한 도시빈민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인터액션 상임이사인 장세규 목사

가 전함. USAID 북한 담당자들은 이날 2002년 북한 경제개혁 추진 이후 최대 피해자인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벌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NGO단체들에 구호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장 목사는 밝힘. 미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NGO단체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북한을 지원할 계획. 장 목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 결정 배경과 관련, “클린턴 행정부 말기 이후 지난 6~7년간 미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며 “부시 행정부에 대북 지원을 WFP 등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할 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직접 해야 한다고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함. 장 목사는 “미 정부의 북한 도시빈민 구호활동은 특정 NGO단체가 맡거나 여러 NGO단체가 북한을 지역별로 나눠 맡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며, 도시빈민에게 식량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채소 재배 키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세계일보』, 7. 16).

---

### 북한 관리 9월 스위스서 시장경제 연수 예정

---

7월 16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오는 9월 스위스에서 다자 외교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집단 연수를 받을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고 보도.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국제협상 응용연구 센터(CASIN)’는 오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개발협력처(SDC)의 지원하에 북한 각 행정부처의 현직 관리들을 불러 집단 연수를 실시할 계획. 북한의 고급 관리들이 스위스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올해로 8번째로 비영리 기구인 CASIN은 정부 위촉으로 지난 1997년 이후 해마다 북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 교육을 담당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지난해 집단 연수는 8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네바의 CASIN본부 건물에서 약 6주간 진행됐으며 북한 외 무성과 경공업성,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무역성 소속 관리 등 약 14명이 참여한 바 있음. 종전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자 외교와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난해의 경우는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 과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CASIN측의 설명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6).

---

### 북한, 단둥서 철강과 전자재 다량 구입

---

7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단둥(丹東)에서 건축자재와 철강, 공장설비, 차량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중국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함. 북한 상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단동의 한 중국 상인은 이와 관련, 북한의 일부 기업들이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이나 탄광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은 현금 동원력이 뛰어나다고 전함. 양국간 교역은 중국의 대 북한 투자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평양에서 베이징(北京)이나 선양(瀋陽)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승객으로 가득차며 특히 신의주에 인접한 단동은 양국 교역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단동에서는 이에 따라 소규모 상인들도 양측을 잇는 교량 인근에서 주로 소비재를 거래하는데 작은 상점 쇼윈도에는 옷가지에서부터 과일, 당구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단동의 일부 중국 상인들은 북한 사람들과 거래하기가 쉽지 않으며 종종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상인들은 또 북한과의 거래가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 속도는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는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연합뉴스』, 7. 21).

####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 방북자(금강산 방문객 제외) 10만명 넘어

---

6월 27일 『한겨레신문』은 올 들어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1989년 이후 방북자(금강산 관광객 제외) 누계가 지난달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 방북자는 지난해 말까지 8만1,470명이었으나, 올 1~5월 개성공단 건설 및 시범단지 가동에 따라 2만5,663명이 급증. 방북자는 1997년 1천명을 넘어섰고, 2000년 7,280명에 이어, 2001년 8,551명, 2002년 1만2,825명, 2003년 1만5,280명, 2004년 2만6,213명으로 증가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한겨레신문』, 6. 27).

---

#####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영업실적 꾸준히 증가세

---

6월 27일 『한겨레신문』은 남한 은행으로는 처음 북한에 진출해 영업 중인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의 영업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보도. 지난 12월 공개입찰을 통해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예수금이 15만4천만달러(약 1억6천만원)였으나 5월 말 현재 43만6천달러로 4달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 대출금도 1~2

월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3~5월에는 매달 10만달러 수준을 유지. 이에 따라 영업수익도 1월 9천달러에서 5월 1만7천달러로 두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한겨레신문』, 6. 27).

---

### 개성공단에 남북신발연구소 건설 계획

---

6월 28일 『국민일보』는 북한 개성공단에 북한 기술자들도 참여하는 한국 최초의 산학협력 신발연구소가 들어선다고 보도.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부산지역 신발 제조업체인 삼덕통상(대표 문창섭)은 “신발학과를 갖고 있는 동서대와 경남정보대학 등 2개 대학과 내주 중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개성공장 내 130평의 부지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신발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 신발연구소는 삼덕통상의 사무동 건물 중 2층에 조성. 대지 130평에 3층 건물인 사무동은 이번달 초께 철구조물 공사가 완료됐으며 오는 8월 하순께 준공될 예정. 특히 개성공단 내 대지 2천439평에 설립된 삼덕통상 공장엔 앞으로 1천4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게 돼 이들 중 개성공업대학 등을 졸업한 고급 인력의 잠재력을 개발하지는 의도도 있다고 『국민일보』는 설명. 문 대표는 “지금은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상징성도 가져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개발 장비 20여종이 구축될 신발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공계 대졸 출신 북한 기술자 15명과 현재 부산에 있는 삼덕통상 자체 연구소 직원, 2개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 동서대와 경남정보대학은 신발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학내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축적된 연구를 현장에 적용시켜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라고 『국민일보』는 전함(『국민일보』, 6. 28).

---

### 대북경협 7대 신동력 사업 추진

---

6월 28일 『국민일보』는 정부가 북한과 에너지협력을 비롯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7가지 신동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고 보도. 통일부가 작성한 『7대 신동력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대규모 경협을 대비해 에너지 협력, 철도 현대화, 백두산 관광, 북한산림 녹화, 남북 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 공유하천 공동 이용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실무적 수준에서 준비해왔다고 보도. 7가지는 북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돼 온 사업들이라고 『국민일보』는 덧붙임(『국민일보』, 6. 28).

---

### 남북공동영농단지, 경협사무소 개설 추진

---

6월 29일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공동영농단지 등 시범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경협사무소 개설 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내실화에 주력하겠다고 이같이 보고. 통일부는 또 평양 6·15축전 개최에 이어 8·15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남북당국간공동행사의 정례화를 모색하고,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추진 등 문화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8월 제6차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화상상봉 실시, 면회소 착공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함. 북핵문제와 관련,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북측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유관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4차 6자회담 재개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이와함께 통일부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 우선 서해에서의 효과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6. 29).

---

### 평양·개성 골프관광 합의서 체결

---

6월 29일 『내일신문』은 빠르면 올 하반기 중 평양시내와 골프장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해지고 2년 뒤에는 개성지역 비무장지대 인근에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개장하고 남측 이용객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 이렇게 되면 북한이 평양을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남북간 관계부처 승인절차를 거쳐 남북간 정기직항로를 통해 평양골프장까지 수송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 남북 양측은 양과종자 및 농자재 지원시기와 개성골프장 착공, 평양골프장 보수공사를 7월중 동시 추진키로 합의. 29일 한민족민간교류협의회(회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한교협)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양측은 합의서에서 남측은 북한지역에서 2모작이 가능한 내한성 양과 종묘와 농자재 공

급, 기술이전을 약속. 또 북측은 평양골프장 이용권한과 함께 개성공단 내 약 150만 평을 골프타운으로 건설해 50년간 사용할 권한을 주기로 합의. 이렇게 되면 북한은 양과 재배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한편 스포츠관광사업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와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일신문』은 분석(『내일신문』, 6. 29).

---

### 화상상봉, 남북 첫 접촉

---

6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남북간 접촉이 29일 개성에서 열렸다고 보도.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갈라진 혈육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을 통해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빛의 실크로드’가 현실화할 첫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 남북은 일단 29일 개성에서 열리는 기술자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간 광케이블 접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 정부는 남북의 광케이블 접속 규격만 맞으면 큰 무리없이 화상상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접속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광케이블을 깔거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 북한은 지난 93년 평양~함흥간 공사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당창건 55주년을 기해 전국 200여개 군을 광케이블로 연결, 2003년 10월 현재 북한 전역 200여 시·군 지역까지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 평양~신의주간 광케이블은 400km에 걸쳐 연결돼 있고 평양~함흥 간, 함흥~청진~나진~훈춘간에도 광케이블이 연결돼 있다고 『문화일보』는 설명. 문산까지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북측의 이 광케이블과 연결하게 되는 것임. 정부는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화상상봉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만약 불가능할 경우 위성을 이용한 화상상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일단 남북간 광케이블이 연결되면 남측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각 지역 10개 주요 도시에 디지털 캠코더와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진 ‘이산가족 화상상봉 스튜디오’를 설치한다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여건에서 마주볼 수 있다는 화상상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 스튜디오를 설치한다는 게 남측의 안”이라고 설명. 물리적인 설비가 갖춰진 후 기존 이산가족 상봉자와 다른 방식으로 각 지역별 화상상봉 대상자를 선정,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문화일보』는 덧붙임(『문화일보』, 6. 29).

---

### 파주·연천에 남북경협단지 조성 검토

---

7월 1일 『연합뉴스』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경기도가 밝혔다고 보도. 도 관계자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도가 추진중인 벼농사 시범사업 및 당면공장 지원사업 등과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협단지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단지가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반대로 북측 근로자가 남쪽으로 내려와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지의 이름을 ‘평화구역’으로 하자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이며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것들이 결정되면 정부와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임(『연합뉴스』, 7. 1).

---

### 통일부, 6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7월 2일 『통일부』는 6월중 남북교역액이 135,423천달러로 전년 동월 60,214천달러 대비 124.9% 증가했으며 반입은 19,344천달러, 반출은 116,079천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이중 거래비중은 상업적 거래가 62,592천달러로 46.2%, 비상업적 거래가 72,831천달러로 53.8%를 차지.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 43.3%, 철강·금속제품 18.0%, 섬유류 17.0%, 광산물 11.3%, 전자전기제품 6.2% 등이며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61.3%, 기계류 15.8%, 철강·금속제품 7.8%, 섬유류 5.8%, 광산물 2.3% 등이라고 밝힘(『통일부』, 6. 2).

---

### 정부, 북한의 영유아 지원예산 300억

---

7월 6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에 2010년까지 5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획예산처가 5일 발표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 중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살 이하 어린이(230만명)와 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좋게 하는 5개년 사업임. 남쪽의 저출산 경향과 관련해 통일 이후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인적 자원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임. 영양식과 단백질원을 공급하고, 의약품·백신 등을 제공하며, 건강 검진 장비를 지원. 내년에 3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총사업비는 2010년까지 5,500억원을 잡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한겨레신문』, 7. 6).

---

### 남북경협협의회사무소 개설

---

7월 10일 『매일경제신문』은 남북이 양측의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 또 연내 역사(驛舍)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한다는 데도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 남북은 10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설치를 공동으로 제안. 우리측은 당장 다음달 초 설치를 제안했고 북측은 연내 개설하자고 의견을 제시. 남측은 “8·15 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조속히 철도 역사공사를 완료해 연내 시험운행을 하자”고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매일경제신문』, 7. 10).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상호보완적' 경협 합의

---

7월 12일 『경향신문』은 남북이 경제협력추진위 10차회의를 통해 ‘서로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되는 사업’을 먼저 하자는 ‘상호보완적 경협’을 내년부터 광공업, 경공업 분야에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북측의 값싼 노동력만을 활용하던 경협의 틀을 더욱 격상시키고 ‘서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도약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는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 등 북측이 보유한 광산자원 공동개발이 우선 꼽히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연간 생산량이 1백60만t으로 세계 생산량의 약 1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 북측은 현재 전력난 및 시설 노후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에는 남측에서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이 많이 있다”며 “우리 자본과 기술로 개발, 현물로 가져오거나 공동으로 해외 판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북측은 경공업 분야에서도 남측에서 자재, 설비를 보장해주면 북측 숙련공을 활용, 남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남쪽에서는 실을 수입하는 데 북측에서 생산해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등 구체적 예를 들기도 했다고 한다고 이 신문은 전함. 다만 광산개발 등에는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북한 핵 해결과 맞물려 추진될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 경협 활성화를 위한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동의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으로 10월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과 도로 개통 및 연내 철도 개통에 합의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함. 9월 경협 협의 사무소 개소, 9개 경협합의서 조속 발효, 개성공단 통행,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경협의 법적, 제도적 장비를 갖추는 데 속도를 올리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경향신문』은 소개(『경향신문』, 7. 12).

### 대북 중대제안 핵심내용

7월 12일 『서울경제신문』은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중대제안’을 최종 확정된 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안 배경과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 대북 ‘중대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서울경제신문』, 7. 12).

#### <대북 중대제안>

- ▲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 합의시, 중단된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송전선로 건설 즉각 착수. 경기도 양주와 평양간 송전선로 연결을 검토
- ▲ 송전선로 건설 착수 3년 이내에 북핵 폐기, 즉 핵폐기 이행시점에 전력 공급, 이 론상 2008년 이후 200만kW 전력 제공 무난
- ▲ 중단된 경수로 건설 잔여 공사비 35억달러(우리측 부담 24억달러) 상계 범위에서 비용 부담 가능
- ▲ 만일 경수로 건설을 재개하면 잔여 공사비에 송전선로 비용까지 추가돼 플러스 알파 불가피. 소요시간도 10년 이상 소요
- ▲ 전력공급이 북한이 추구하는 핵에너지를 대신한 것인 만큼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다자간 안전보장과 북미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와 결합
- ▲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
-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체제안전보장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난 해결이라는 두가지 중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경제난 해결. 따라서 6자회담 관련국들도 상응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
- ▲ 지속적인 송전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한반도 통일시대와 경제공동체 대비한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봐야 할 것

### ‘왕후심청’ 애니메이션 남북 동시 개봉

7월 13일 『매일경제신문』은 남북한이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왕후심청’(감독 넬슨 신)의 북한 개봉이 성사됐다고 보도. 왕후심청의 홍보를 맡은 한 영화인은 “왕후심청이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북한에서 개봉한다”며 “지난 8일 북한측 공동 제작사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에서 북한 개봉 허가를 내용으로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12일 밝힘. 국내에서는 다음달 12일 개봉. SEK측은 이메일을 통해 “장편 만

화영화 왕후심청을 광복절에 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며 “대사 녹음에도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동원된다”고 설명. 왕후심청은 북한의 대표적인 극장인 국제영화관과 최신식 극장으로 알려진 개선문극장 등 평양에 위치한 6개 극장에서 상영. 현재 SEK는 현지 상영을 위한 평양표준어(조선어) 녹음 작업을 진행중이며, 25일께 최종 필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은 전함(『매일경제신문』, 7. 13).

---

### 과기부,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

---

7월 13일 『서울경제신문』은 남북 과학기술자들 간 교류와 협력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이 추진된다고 보도.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13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도출된 12개 항의 공동합의문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 실천방안의 하나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최 차관은 “남북한 공식합의문에 과학기술 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자원개발 등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함. 과기부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함께 공동연구 사업, 과학기술 인력·정보교류 등 세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은 소개(『서울경제신문』, 7. 13).

---

###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첫 남북공동조사

---

7월 16일 『동아일보』는 남북 학자들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북한지역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해 공동 학술조사를 벌인다고 보도. 고구려연구재단(이사장 김정배)은 북한 사회과학원 및 유물보존지도국(한국의 문화재청)과 함께 19~30일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힘. 조사 대상은 사신도로 유명한 강서대묘와 강서중묘, 유주자사(幽州刺史) 진(鎭)의 대형 초상화가 발견된 덕흥리 무덤, 주름치마 여인의 벽화가 있는 수산리 무덤, 연꽃무늬 벽화로 유명한 진과리 무덤 등 고분들과 대성산성, 평양성, 정릉사, 법운암 등임. 김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왜곡을 위해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방안과 남북 학계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함. 남측에서는 여호규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호태 울산대 교수와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진 등 11명이 참석하며 북측에서도 비슷한 수의 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동아일보』, 7. 16).

---

### 금강산 해수욕장 첫 야영객 받아

---

7월 16일 『연합뉴스』는 금강산 해수욕장이 처음으로 야영객을 받았다고 보도. 아시아 태평양 로버(대학생) 스카우트 290여 명은 1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지난 2002년 개장한 금강산 해수욕장이 야영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수욕객 유치를 위해서는 야영장 설치가 절실하다”는 현대아산측의 요구를 북측이 수용해 야영장을 개설. 야영장에는 침상이 있는 텐트 20채와 샤워장, 배구코트 등을 설치. 현재로서는 취사가 불가능하지만 현대아산측이 조만간 취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 금강산 해수욕장 해변에는 ‘썬텐 베드장’이라는 팻말 아래 40개 가량의 의자가 비치돼 있고 바나나 보트도 탈 수 있어 남한의 해수욕장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 놓았다고 이 신문은 전함(『연합뉴스』, 7. 16).

---

### 백두산·개성 다음 달 시범관광, 서울~삼지연공항 직항로 개설 추진

---

7월 18일 『문화일보』는 금강산 외금강 일대로 제한됐던 북한 관광이 개성과 백두산으로 확대된다고 보도. 또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과 삼지연공항을 잇는 남북 직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어 남북 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일보』는 보도. 18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개성은 8월 15일부터, 백두산은 8월 말쯤 시범 관광을 실시할 계획.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북한 원산초대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3시간 30분 동안 면담. 현 회장은 17일 강원도 고성 남측 출입국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월 중으로 백두산과 개성 시범관광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현 회장은 “개성 관광에는 선죽교 등 시내 유적지는 물론이고 시내에서 떨어진 박연폭포도 포함된다”며 “백두산 관광객들의 숙소로 쓸 수 있도록 북측이 초대소(집) 20채를 제공한다”고 말함. 현대아산은 백두산과 개성 관광이 시작되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북한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문화일보』, 7. 18).

---

### 파주서 광케이블 연결식

---

7월 19일 『조선일보』는 18일 오후 2시 경의선 도라선역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경기 파주시 광탄면 경의선 인근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점에서 광케이블 연결식을 가졌다고 보도. 이 날 행사는 KT 맹수호 사업협력실장과 북한 김인철 체신성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 문산지점과 북측 개성전화국에서 뻗어나온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에 연결된 광통신회선은 총 12다발(core)인데, 이 중 4다발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연결돼 이산가족 화상상봉용으로 사용될 계획. 광통신회선 4다발은 최대 200만건의 통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나머지 회선은 향후 개성공단 전화망 등 남북 간 통신회선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예정. 개통식에 참석한 KT 맹수호 사업협력실장은 “오는 30일까지 서울~평양 간 광통신망을 완전 개통,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함(『조선일보』, 7. 19).

---

### 에스제이-지에스, 중국과 1천만달러 공급협약 조인

---

7월 19일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주)에스제이-지에스와 중국 아소이(ASOEM)사가 7월 21일 1천만달러 규모의 공급협약(MOU)에 조인할 예정이라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19일 밝혔다고 보도. 관리위원회는 “이번 MOU에 따라 에스제이-지에스는 중국의 중장비 부품 유통업체인 아소이사에 향후 3년 간 1천만달러 어치의 유공압 패킹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이 조인식은 개성공단 내 에스제이-지에스 건물에서 개최. 관리위는 “에스제이-지에스는 지난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가 이미 유압실 33만여개를 생산해 이 가운데 5만달러어치에 해당하는 10만개를 남측으로 반입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7. 19).

---

### 상반기 남북 선박운항 110% 증가

---

7월 19일 『연합뉴스』는 올 상반기 남북 간 선박운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인천-해주 간 운항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 통일부에 따르면 상반기 남북 간 선박 운항은 편도 기준 1천970회로 작년 상반기의 937회에 비해 110.2% 증가. 이 가운데 남에서 북으로의 운항은 985회로 137.9% 늘어났고 북에서 남으로의 운항은 같은 횟수이면서도 증가폭은 88.3%로 비교적 적음. 이런 폭증세는 북한산 모래 반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전체 운항중 732회가 모래 수송. 모래 수송을 제외한 운항 횟수도 지난 해 대북 식량차관 잔여 물량 및 WFP의 대북 식량지원 물량 수송 등에 따라 작년보다 34.4% 증가. 항로별로는 인천-해주가 작년의 232회에서 올해는 1천105회로 4.8배 늘어나면서 전체의 56.1%를 차지. 상반기 해상물동량은 237만t으로 작년의 40만t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9).

---

### 핵의학 분야 남북 협력

---

7월 19일 『연합뉴스』는 남북 핵의학자들이 북한에서 서로 만나 협력을 모색한다고 보도. 19일 대한핵의학회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핵의학과 이명철, 정준기 교수와 김성훈 교수(가톨릭의대), 채종서 박사(원자력의학원), 서일택 대한핵의학회 사무국장, 이관행 신진메디스 대표 등은 남북한간 핵의학 기술협력을 위해 오는 23~26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 이번 방북은 이명철 세계핵의학회 회장과 (주)새한산업 김철중회장이 지난 5월 28~30일 방북 당시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합의한 데 따른 것임. 대표단은 이번에 평양의료협력센터와 적십자종합병원을 방문, 국산 핵의학장치 및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환자의 질환을 촬영 진단하고 혈액 내에서 미세성분을 분석하는 방사면역측정법을 선보일 예정. 이를 위해 지난달 테크네슘 발생기(삼영유니텍주식회사 제공)와 뇌영상 촬영 키트(동아제약 제공), 방사면역측정 키트(신진메디스주식회사 제공) 등이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 이명철 교수는 “앞으로 국산 방사성의약품을 북한에 정기적으로 공급해 북한 핵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2006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에도 북한의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9).

---

### 개성공단 진출 남한기업, 근로자 25명 해고

---

7월 20일 『국민일보』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고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19일 밝혔다고 보도. 북측 근로자 해고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기업 운용 방식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 북측 근로자가 남한기업에 채용됐다가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25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해고됐다”면서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자본주의 시각에 따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기업도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요구하자 결국 수용했다”고 설명.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근로자의 ‘완전 고용’이 해고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통해 깨졌다는 점에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함. 이어 “북측은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닌 남한기업의 사장이 준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함. 통일부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당국자는 “개

성공단에서는 북측 근로자에게 기술교육을 시킨 뒤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노력채용 계약서'를 체결토록 돼 있다"며 "능력이 안돼 그만 두는 경우가 있으며 재량권은 기업이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당국자는 "해고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였다(『국민일보』, 7. 20).

---

### 서해 충돌방지 통신연락소 다음 달 13일부터 운용

---

7월 20일 『국민일보』는 남북한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통신연락소를 8월 13일부터 운용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또 지난해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3단계에 걸쳐 완전 철거키로 합의한 이후 2단계에서 중단됐던 군사분계선(MDL) 상에서의 선전물 철거작업을 7월 25일부터 재개키로 했다고 보도. 남북은 20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 그러나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8월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판문각에서 제4차 실무대표회담을 열어 논의키로 했음. 이번 회담으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MDL 상에서의 긴장 완화 방안이 전면 재개돼 남북간 군사부분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는 남북 군 상황실에 설치되는 첫 핫라인으로 앞으로 군사 핫라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분석(『국민일보』, 7. 20).

---

### 개성공단 다음 달 1일부터 분양

---

7월 22일 『문화일보』는 북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도. 한국토지공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결과에 따라 통행·통관 및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문화일보』는 전함. 이번에 분양할 토지는 본단지 1차 5만평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감안한 면적이며 대상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등임. 개성공단 본단지 토지는 2054년 4월 12일까지 사용권이 있고 평당 분양가는 시범단지과 같이 14만9,000원이라고 밝힘. 입주업체 선정은 정부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9월 12일 선정된 업체를 발표할 예정. 선정된 업체들은 계약체결, 협력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일보』는 전함.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을 8월 1일 분양공고시 발표할 계획이며

토공 개성공단 홈페이지(gaeseong.iklc.co.kr)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문화일보』는 덧붙임(『문화일보』, 7. 22).

##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홍석현-박길연 뉴욕서 6자회담 재개 논의

7월 2일 『서울신문』은 홍석현 주미대사가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에서 박길연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와 만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보도.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과 북한의 대사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같은 사실을 언론에 즉각 공개한 것도 이례적임. 홍 대사는 박 대사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한 워싱턴 정가의 다양한 분위기를 설명하고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 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위성락 주미대사관 정무공사가 전함.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우리는 6자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려면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홍 대사는 미국측 인사들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6자회담에)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함. 이날 회동의 목적과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간곡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서울신문』, 7. 2).

### G8, 북한 6자회담 복귀 촉구

7월 9일 『조선일보』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들이 8일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고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 이들 정상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3일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조건없이 복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조선일보』, 7. 9).

### 힐-김계관 북경 극비접촉, 6자회담 재개 전격합의

7월 10일 『국민일보』는 북한과 미국이 9일 조선 외무성 부상 김계관과 미 국무성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의 베이징 회동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중앙TV」은 9일 오후 10시 45분 북-미간 6자회담 재개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양측의 베이징 비밀접촉 사실을 전함.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양자협상을 놓고 논란을 벌여오던 미국과 북한 양측이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극비접촉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 「중앙TV」는 마감 뉴스에 이어 '내일의 날씨' 예보까지 마친 뒤 '내일의 방송순서'를 소개하기에 앞서 음악 '새별'을 내보낸 후 「중앙TV」의 아나운서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 "6자회담 조미 단장 접촉이 진행되었다"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베이징 접촉을 통해 7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 「중앙TV」에 이어 「중앙방송」이 오후 10시 57분, 「중앙통신」이 오후 10시 58분, 평양방송이 오후 11시에 잇따라 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국민일보」, 7. 10).

---

### 6자회담 26일부터 베이징 개최, 폐회날짜는 안 정해

---

7월 18일 「동아일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이달 2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고 보도. 이번 6자회담은 과거 1~3차 회담과는 달리 폐회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일정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밝힘. 정부 당국자는 이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이 다른 참가국에 '26일 개최안'을 갖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락 의사를 전했고 다른 나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또 이 당국자는 "3, 4일간 열렸던 1~3차 회담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기를 정하지 않고 성과를 낼 때까지 끝장토론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참가국들이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회담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함(「동아일보」, 7. 18).

---

### 중·러 안보협력 높이 평가

---

6월 30일 「연합뉴스」는 23일자 「민주조선」을 인용해 북한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6.30~7.3)에 즈음해 양국의 협력 증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 「민주조선」은 '간섭과 압력에 대처한 러시아의 대미 강경자세'라는 글에서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빈번한 고위급 내왕을 진행하면서 정치, 경제, 안정보장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대중 무기금수 조치에 반대, 중국에 군사장비와 군사기술

제공을 약속하며 합동 군사연습을 계획하는 등 군사분야에서 쌍무적 협조를 다그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 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시도와 압력 책동에 대처해 국내 단합과 국력 강화에 적극 달라붙고 있다"며 "러시아는 미국의 반(反)러시아 정책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적 협조와 다국간 협력강화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조선』은 보도. 또 22일자 『로동신문』에서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국제무대에서 '유일 초대국'의 독선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 신문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분야 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은 오는 8월 중순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인 '소드루제스트보(우정)-2005'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연합뉴스』, 6. 30).

---

### KEDO, 경수로사업 무관 계속 존치

---

7월 10일 『연합뉴스』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경수로사업과 관계 없이 KEDO를 국제기구 조직으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 KEDO는 지난 주말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정례 집행이사회에서 'KEDO와 경수로 프로젝트의 장래는 별개'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KEDO의 한 관계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보도. 경수로 사업과 관계없이 KEDO가 그대로 존치될 경우 북한의 복귀 결정으로 이달 말부터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경수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북 에너지 지원사업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파악.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오는 8월말 퇴진할 예정인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적절한 인사를 물색 중이라는 뜻을 이사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5년 한시적으로 KEDO에 가입해 있는 유럽연합(EU)의 가입 연장 문제도 논의, EU측은 'EU 집행위원회가 가입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사회는 또 미국이 2년째 운영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경비절감을 위해 사무국 사무실을 축소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7. 10).

---

### 북·중 상호원조조약 체결 맞아 친선 강조

---

7월 12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44돌(7.11)을 맞아 양국간 친선을 다졌다고 보도.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는 우둥허(武東和) 대사 등 주북한 중국 대사관 직원들, 방

북 중인 시진핑(習近平) 저장(浙江)성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중국 인민평화군축협회 대표단을 초청해 11일 평양청류관에서 연회를 개최.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김수학 보건상은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한 뒤 “조중 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우 대사는 이 조약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줬다”며 “새 세기에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중조 친선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했고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함. 이날 연회에는 김영일 외무성 부상, 리용남 무역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7. 12).

---

#### WFP, 북한 호우피해지역 조사단 파견

---

7월 20일 『연합뉴스』는 WFP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와 평안남도에 피해규모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WFP의 긴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함북 청진시와 평남 북창군, 덕천군, 맹산군에 피해가 발생, 이들 지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실종했으며 25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설명. 또 재산피해는 가옥 4천385채가 붕괴 또는 파손됐고 7천346채의 가옥과 도로, 논 등이 침수돼 북한 당국은 1만7천530명의 북한주민에게 식량구호를 실시. 보고서는 “추가적인 긴급 지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피해규모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힘(『연합뉴스』, 7. 20).